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 이종윤 원로목사

급변하는 사회에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책임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 구조와 변화된 가치관의 도전을 받고 있는 현대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목회를 개발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알팍한 기술과 요령을 터득한 몇몇 목회자들은 교인수를 증가시키는 일에는 일단 효과를 보았다고 자처하고 있으나 시대와 사회를 변혁시킬 능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기에는 미흡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시공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는 자기 목회를 소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말씀계시와 행위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는 교회보다 우선한다. 예수님이 최고의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는 교회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목회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러나 교회내 다른 은사가 있듯이 다른 목회도 있다. 하지만 모든 목회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부활하심으로 실현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향하신 것이다. 목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회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뜻을 만나고, 이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을 비추주는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으므로 목회자는 거듭난 신자를 만들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목회를 교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듯이 하나님의 목회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계속되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듯 목회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없는 목회는 죽은 목회다.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이 있고 뜨겁게 기도로 아버지께 여쭙어 가면서 균형 잡힌 신앙 인격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76호] 2013년 7월 27일 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일은 대림절 첫 주 예배로 드립니다.


야시다시피 이번 주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시 예배 참석인원을 전체 좌석수의 20%내로 축소하기 위해 장의차 한칸씩을 아예 비워 두는 형태로 좌석배치를 변경하여 보다 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당 2,3,4층에 들어오신 후 반드시 **‘에배석’**이라고 표시된 좌석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강화된 요청에 협조하여 장년 정규예배 외의 주일 교회학교의 부서별 예배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고 찬양대도 축소 운영합니다.

* 오는 12월 3일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속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자녀들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방역수칙상 예년과 같은 교회에서의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기도회는 열리지 못합니다. 대신 순례자에 계재된 기도제목으로 각 교구와 다락방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새벽기도회는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방역 및 교인확인 절차**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발급받은 교인증을 확인하여 저장하여 두시면, 교회입장 시 인증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 안내**
방역을 위해 지하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하므로 동승한 가족분들은 가능한 주차장 입구에서 모두 하차하셔서 1층 현관경문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주차 후, 지하1층 계단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교인증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h3>우리의 비전 (vision)</h3>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QR코드</p>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p>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태성이현주(카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사항정(러시아), 허창범(하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혜(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파, 사지, 예녹(인도), 스프로토(바베이, 필리핀, 프랑스, 수레시, 수버썬, 알로롱, 비시뉴(브노, 보디소프, 린툼, 수잔존(벵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경진(김보디야), 이재훈(박재연(미디카(스리</p>	



“세상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 **시편 33:4-5**
추수감사절이며 교회설립29주년을 맞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충만하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찬송 시 중 하나입니다. 5절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상의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들에게 나눠주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넘침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풍성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혹은 성품이 충만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는 불변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He is God of steadfast love).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것은 부끄러운 죄와 수치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고통과 낙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2.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하기 전에 5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정직하기에 정직한 자가 마땅히 행할 바는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금의 현실에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에 다 그의 손안에 있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를 앙망해야 합니다. 공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깨끗함을 말하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판단과 행동의 의미입니다. 무효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발라도에 대한 심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함으로 내몬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나치 독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확실히 실행되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한 무리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하심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은 그가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며 살피시기 때문입니다(13-14절). 그가 열방의 도모를 다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다 무효한 것으로 만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4권 22장 23항에서 악한 왕은 그 땅에 임하는 여호와와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군주, 악한 지도자, 악한 목사나 거짓 선지자의 등장 자체가 이 땅에 임하는 여호와와 진노라는 칼빈의 지적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모독적인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는 위정자들의 등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 아니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19도 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채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입니다.(삿 2:20-23)

맺는 말
우리는 정말 잔치를 벌일 만큼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로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야할 십자가 버겁기 그지없어도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하신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충만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자하심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앙망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인자를 맛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양춘경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행 4:11-12... 인도자
 기 원 Invocation 인도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5(구주강림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04(10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4:18-21... 인도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336((38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4:1 인 도 자
 찬 송 620 다 함 께
 기 도 예완식 집사
 성 경 딤후 4:6-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 ... 설 교 자
 * 찬 송 461(51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기 도 ... I부: 석상화 권사 II부: 박수옥 권사
 성 경 출 1: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구속의 섭리”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21)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701호
수 요 예 배	I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14명	690명	2,204명	463명	1,40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1/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22일	현 금	70,421,000	
	교회학교운영비		1,923,740
	행 사 비		3,233,500
	출 판 비		330,000
	연합사업비		500,000
	복리후생비		399,900
	통 신 비		1,854,300
	수도광열비		142,200
	차량유지비		1,090,950
	소모품비		48,260
	수선유지비		18,289,590
	식당운영비		395,520
	합 계	70,421,000	28,207,96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